

- 주요 뉴스: 미국 6월 PCE 물가, 예상치 부합. 개인소득 증가세 둔화
 - EU 이사회, 프랑스 등 7개국에 재정적자 감축 권고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둔화, 인플레이션 전망은 동일
 -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 경제 연착륙 가능하나 지정학적 갈등에도 유의
- 국제금융시장: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미국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1%], 달러화 보합[-0.0%],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4영업일 만에 반등
유로 Stoxx600지수는 ECB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을 반영
유로화는 0.1% 절상, 엔화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금리인하 전망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382.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8.3원, 1.5% 상승). 한국 CDS 보합

		7/26일	7/25일	전일대비			7/26일	7/2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459.1	5,399.2	+1.11%	국채 금리 10y	미국	4.19%	4.24%	-5bp
	유럽	512.83	508.63	+0.83%		독일	2.41%	2.42%	-1bp
	중국	2,890.9	2,886.7	+0.14%		영국	4.10%	4.13%	-3bp
	일본	37,667	37,870	-0.53%	CDS 5y	한국	36bp	36bp	-0bp
	한국	2,731.9	2,710.7	+0.78%		중국	65bp	66bp	-1bp
환율	달러지수	104.32	104.40	-0.04%	위험 지표	EMBI+	-	407	-
	유로화	1.0856	1.0846	+0.09%		VIX	16.39	18.46	-11.21%
	엔화	153.76	153.94	+0.12%		WII유	77.16	78.28	-1.43%
	위안화	7.2505	7.2469	-0.05%	원자재	구리	410.5	411.3	-0.19%
	원화	1,383.8	1,383.0	-0.06%		금	2,387.2	2,364.6	+0.9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PCE 물가, 예상치 부합. 개인소득 증가세 둔화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2.5%로 전월(2.6%)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예상치에 부합.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전월과 동일. 개인 소득 증가율은 0.2%로 예상치(0.4%)를 하회했으며 개인 지출 증가율은 0.3%로 예상치에 부합
- Nationwide는 2분기 들어 인플레이션이 더욱 완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조. Morgan Stanley는 7월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물가지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 BoA는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저축 증가율이 3.4%로 완만해지면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U 이사회, 프랑스 등 7개국에 재정적자 감축 권고

- EU 이사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등의 7개국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권고. EDP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거나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촉발되며 해당 국가들은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향후 4~7년간의 적자 감축안을 제시할 예정

■ UN 사무총장,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더위에 대응할 필요

-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금년 6월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록상 가장 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새로운 비정상(New abnormal)이라고 설명. 금년 더위로 1,300명의 하지 순례자(Hajj pilgrims)가 사망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노인,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이 위협받고 있다고 부연
-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 근로자의 70% 이상인 24억명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도 1만9,000명에 달한다고 추정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둔화, 인플레이션 전망은 동일

- 미시건대학교에서 집계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 66.4로 전월(68.2) 대비 하락. 현재상황평가지수 역시 62.7로 전월(65.9) 대비 둔화되었으며 미래기대지수는 68.8로 전월(69.6) 대비 하락
-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2.9%)과 동일했으며 장기(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2.9%) 대비 소폭 상승
- 미시건대학교는 지난 3개월간 소비자심리지수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면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이나,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상존해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지표 동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

■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 경제 연착륙 가능하나 지정학적 갈등에도 유의

-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쟁과 갈등 고조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 다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배제

■ 일본 재무관, 과도한 환율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 간도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투기로 인한 과도한 환율 변동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는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G20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

■ 러시아 기준금리, 7개월 만에 18.0%로 인상해 2년래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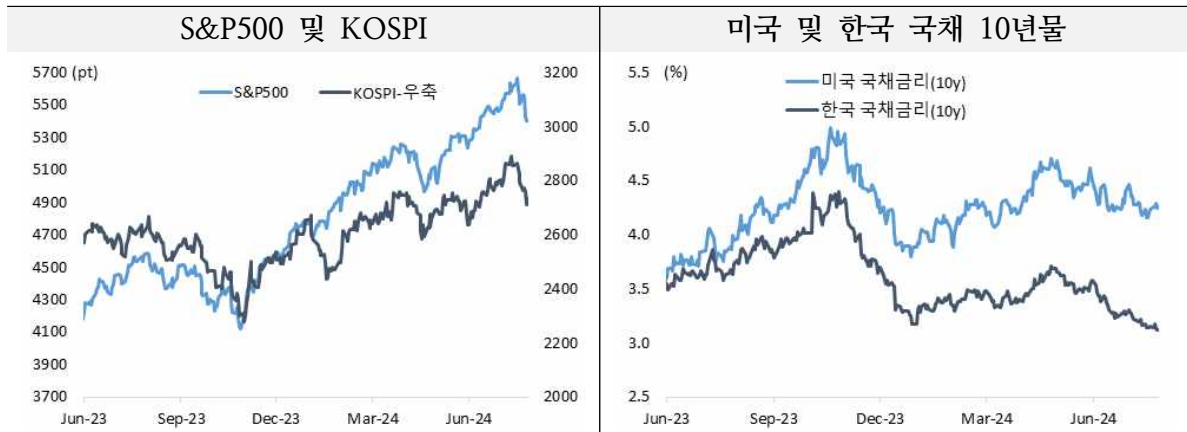
-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16.0%에서 18.0%로 7개월 만에 인상하고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금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4.3~4.8%에서 6.5~7.0%로 상향하면서 상반기 러시아 경제가 군비지출 증가 등으로 과열되었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7/29~8/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ISM 제조업 지수(8/1일), 시간당 임금상승률(8/2일)
- 미국·영국 등 7월 S&P 종합 PMI (8/1일), 중국 PMI(7/31일)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